

빛과 그림자, 스페인 출판계의 현황

김현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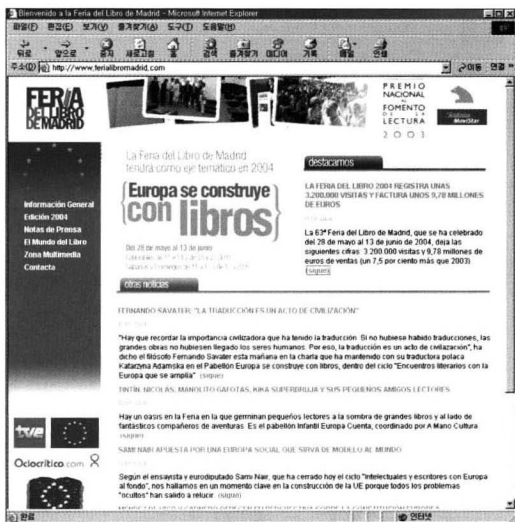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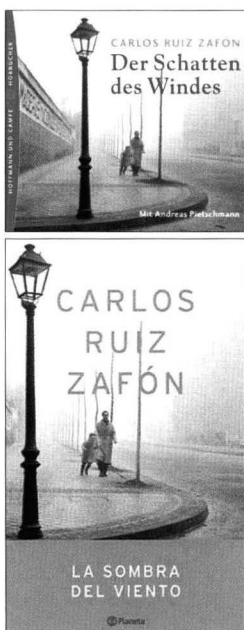
카를로스 루이스 사폰 Carlos Ruiz Zafón의 소설 《바람의 그림자 La sombra del viento》(Planeta)는 최근 스페인 독서시장에서 폭넓은 반응을 얻으며 일약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이 책의 판매부수를 들여다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는데, 그 중 48만5,000부만이 스페인에서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해외시장으로 수출되었다. 이는 국내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1995년 이래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스페인 출판계에서 해외시장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입증한다. 해외시장에서는 특히 스페인 출판사들의 자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현지시장에 진출한 자회사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03년 도서수출입현황>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스페인 출판부문의 해외투자는 총 3000만 유로에 이른다. 투자액의 84퍼센트는 라틴아메리카에 집중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의 비중은 10퍼센트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지역은 유럽연합으로 언어의 장벽을 깨뜨리고 전체의 57.6퍼센트를 차지했다. 스페인의 전통적인 수출시장인 라틴아메리카는 33.8퍼센트에 머물렀고 미국은 4.8퍼센트였다. 그러나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 스페

인의 도서 수출액은 전년 대비 8.7퍼센트 감소한 4억 6900만 유로에 그쳤다. 2001년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14퍼센트 증가한 6억300만 유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판계의 위기를 운위할 만한 상황이다.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으로의 수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이라크 전쟁과 유로화의 강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침체 등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지난해의 도서판매총액은 26억7500만 유로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퍼센트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그동안 담보상태에 있던 출판계의 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책으로 유럽을 건설하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레티로 Retiro 공원에서 열렸던 제63회 마드리드 도서전에서도 확인되었다. 17일간(5. 28.~6. 13.) 연인원 320만명이 행사장을 찾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전년 대비 7.5퍼센트 증가한 978만 유로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러한 회복세는 올해 들어 해외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5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 유럽연합의 스페인 도서수입은 전년 대비 30.8퍼센트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독일(51.8퍼센트), 포르투갈(32.4퍼센트), 영국(27.8퍼센트), 프랑스(10.9퍼센트), 이탈리아(1.1퍼센트) 등이 주요 수입국이다. 이들 5개국의 5월말까지의 총 수입액은 1억1200만 유로에 달하며, 이는 5월까지의 출판부문 총수출액의 58퍼센트에 해당된다.

한편,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예외적으로 아르

· 《바람의 그림자 La sombra del viento》
· “책으로 유럽을 건설하자”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었던 제 63회 마드리드 도서전 홈페이지



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5월 말까지 각각 123퍼센트와 98퍼센트의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최근 이들 국가의 경제지표가 점차 호전되고 있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의 저변을 고려할 때 스페인 출판계의 앞날이 결코 밝은 것만은 아니다. 유럽서적상연합회(EBF)의 2002년 통계에 따르면, 유럽인의 42.1퍼센트가 최근 12개월 동안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스페인은 52.7퍼센트로 포르투갈(67.3퍼센트), 벨기에(58.3퍼센트), 그리스(54.3퍼센트)에 이어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2005년 《돈키호테》 발간 4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스페인 출판계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출판유통구조의 현대화와 출판의 글로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에 종합적인 출판진흥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마드리드 도서전에서는 서적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IVA) 폐지논쟁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유럽연합 내에서 특별소비세는 덴마크가 25퍼센트로 가장 높으며, 최근에 유럽연합에 가입한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의 경우에는 서적에 특별소비세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유럽연합의 권장세율이 5퍼센트인 점을 고려하면, 스페인은 현재 4퍼센트로 비교적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최근 집권한 사회노동당은 1퍼센트라는 상징적인 수준으로 특별소비세를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마드리드 열차 폭탄테러 관련 도서 붐

지난 3월 11일 마드리드의 아또차Atocha 역에서 발생한 알 카에다에 의한 폭탄테러는 스페인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총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발생한 이 사건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스페인의 정권교체와 이라크에서의 스페인군 철수로 이어지는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3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4개월 남짓의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스페인 사람들은 비극적 사건의 기억과 그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3월 11일과 관련된 책들이 쏟아지고 출판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추모 시집에서 증언, 정치적 결과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성격의 관련 도서들이 출판계를 강타하며 하나의 '현



3월 11일, 마드리드 아또차 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현장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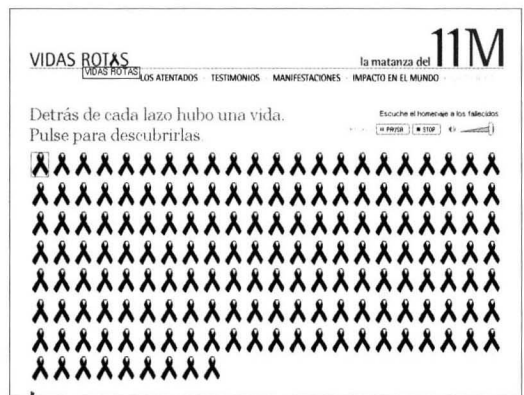
상'을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 출간된 책들을 대충 나열해 보면, 《3월 11일. 희생자들에 바치는 오마주 11-M. Homenaje a las víctimas》(MR), 《예기치 못했던 영웅들 : 3월 11일의 또 다른 얼굴 Heroes inesperados: la otra cara del 11-M》(Temas de Hoy), 《3월 11일. 기억을 위한 말들 11-M. Palabras para el recuerdo》(Punto de Lectura), 《3월 11일-3월 14일. 확산되는 물결 11-M - 14-M. Onda expansiva》(Espejo de Tinta), 《3월 11일. 정부의 거짓말. 11-M. Mentira de Estado》(Ediciones B), 《3월 11일 : 조작 11-M: la manipulacion》(Jaguar), 《3월 11일. 세계를 속였던 3일간 11-M: tres dias que enganaron al mundo》(Txalaparta), 《3월 11일. 반응 11-M. La respuesta》(ACADAP), 《오욕의 날들 : 3월 11일-3월 14일 Dias de infamia: del 11-M al 14-M》(LibrosLibres), 《응징의 투표. 시민의식의 각성과 국민당의 패배 Voto de castigo. El despertar de la conciencia ciudadana y la derrota del PP》(Debate), 《마드리드, 3월 11일. 기억을 위한 시 Madrid, once de marzo. Poemas para el recuerdo》(Pre-Textos), 《3월 11일 : 망각에 맞선 시 11-M: Poemas contra el olvido》(Bartleby) 등이 있다.

위에 나열된 책들은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사건의 원인과 경과, 그리고 정치사회적 결과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있는 책들이다. 가령, 《반응》은 국제관계와 경제, 대중매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테러사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오욕의 날들》, 《확산되는 물결》, 《응징의 투표》, 《정부의 거짓말》 등에서는 아스나르 정부의 총선 패배를 불러온 원인에 대한 고찰과 언론 및 야당의 역할에 대한 분석을 행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증언적 성격의 책들이다. 가령, 《희생자들에 바치는 오마주》는 생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스페인 현대사의 가장 잔혹한 순간을 되살리고 있다. 또 비극의 인간적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예기치 못했던 영웅들》은 “죽음의 기차”의 희생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몸을 던졌던 이름 없는 시민들의 영웅적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많은 시인들이 참여한 추모 시집들이다. 안토니오 풀리나스와 마누엘 리꼬를 비롯해 총 117명의 시인이 참여한 《망각에 맞선 시》는 “생명과 자유와 톨레랑스에 바치는 찬가”이다. 또 《기억을 위한 시》에는 안토니

오 테 비에나와 까바예로 보날드를 비롯한 90명의 시인들이 참여하였으며 스페인어, 카탈루냐어, 바스크어, 갈리시아어 등 네 개의 언어로 씌어졌다. 이 시집들과 함께 3월 11일은 이제 스페인 문학의 페이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3월 11일은 고통과 분노와 증오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더 정의로운 세상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기 위한 시와 예술의 시간이기도 했다. 독자들에게 현재의 역사화, 역사의 현재화라는 이중의 반성행위를 촉구하는 이 책들의 궁극적 메시지는 폭력의 역사를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이다. 이제 문화적 의미에서 기억과 성찰의 장이 열렸으며, 이는 과거에 대한 적당한 환멸이나 폭력행위에 대한 진실 규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문**

이 글을 쓴 김현균은

서울대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하고 마드리드 국립대학에서 중남미문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 테러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벌이는 구조요원들.
- 폭탄 테러 희생자 명단